

경기관광공사, AI 다람쥐 ‘달G’ 쇼츠 인기

AI가 만든 캐릭터·노래 통해
경기도 관광지·축제 등 소개
챗봇·음악·영상 등 시애 접목
관광 홍보 확대…경기 매력 ↑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AI(인공지능)로 만든 릿터 ‘달G’를 활용한 유튜브 쇼츠 시리즈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달G’는 AI가 생성한 다람쥐 캐릭터로,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도 경기도 이야기가 나오면 신나게 정보를 알려주는 반전 매력을 지녔다.

최근 공개된 ‘달G’ 쇼츠 시리즈는 랩 버전과 버스킹 버전 2편이다. 버스킹 버전 영상에서는 ‘달G’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8월 15일과 16일에 시흥 거북섬에서 열린 여름 축제를 소개했다. 1500대의 드론쇼, LED 트론댄스 등 여름밤의 낭만적인 즐길거리를 재치있게 전달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편으로 기획됐으며, 2주 간격으로 새로운 영상이 경기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경기관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는 ‘달G’ 시리즈 외에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경기관광플랫폼’의 챗봇AI가 추천하는 여행코스를 담은 ‘경기GO’시리즈(경기관광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시즌1은 상반기에 공개됐으며, 시즌2는 연말에 5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홍보마케팅팀 직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SNS 채널에 선보이는 등 AI 기술을 관광



▲경기관광공사 AI 다람쥐 ‘달G’. (사진=경기관광공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공사 홍보마케팅팀 관계자는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춰 AI 캐릭터와 콘텐츠를 통해 경기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자 시리즈를 기획했다”며 “AI 등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 여행의 즐거움을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세웅 미디어기자

청년,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연구하다

노무현재단, ‘국가균형발전’ 연구 공모전 개최



▲‘2025년 학생주도 연구프로젝트 지원 공모’ 포스터. (사진=노무현재단)

■화제의 책

나는…퇴사 후…진화도감

김보 ‘나는 으른입니다, 게으른’

북라이프가 게으르지만 노련하게 살아가는 법을 담은 ‘나는 으른입니다, 게으른’을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게으름’을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낸다. 게으름에 대해 더 오래, 더 집요하게 찾아본 게으름뱅이인 자신을 칭하는 이 책의 저자 김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들이 부러워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아 회사를 뛰쳐나왔다.

‘남보다’가 아닌 ‘나만의’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게으름’에 주목했고, 게으름을 단순한 나태함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난 기질로 재해석했다.를 조탁하는 시인의 오랜 여정이 담겼다.

저자는 안정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딱 1년만 자신의 게으름을 들여다보며 살아보자고 결심했고, 게으

름에 대한 신박한 고찰들을 ‘게으른툰’으로 그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강재근 ‘퇴사 후 목공방 창업…’

좋은땅출판사가 ‘퇴사 후 목공방 창업, 5년간의 기록’을 펴냈다.

18년간 기업 관리팀에서 인사관리와 교육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저자 강재근은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일을 해 보고자 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1년간의 준비 끝에 목공방 ‘나무를품다’를 창업해 운영 5년 차를 맞았다.

‘퇴사 후 목공방 창업, 5년간의 기록’은 그간의 여정과 노하우를 담은 실전 창업 에세이다.

창업의 전 과정을 5개 장으로 나누어 퇴사 결심과 준비, 공방 오픈과 운영, 수강생 교육과 마케팅, 번아웃 극복까지 순차적으로 다룬다. 임대 계약 시 주의할 점, 고객 상담과 관리 원칙, 교육 과정 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전국 석사과정생 대상 연구 프로젝트 지원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재조명하고, 예비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재단은 ‘2025년 학생주도 연구프로젝트 지원 공모’를 통해 전국 석사과정생과 지도교수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민주 정부의 본질과 철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4개 팀에는 과제당 최대 400만원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되며, 연구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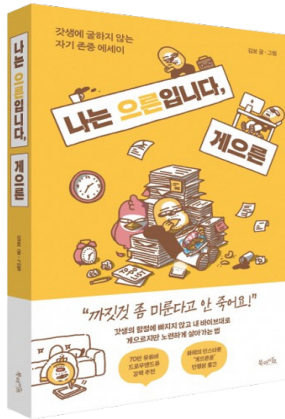
참가 신청은 공고일부터 9월 8일(월)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연구팀은 연구 결과물을 재단의 콘텐츠와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논문은 별도 시상하며, ‘국가균형발전선언 22주년 기념식’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공모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동시에,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정부의 가치와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석사과정 연구자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 결과는 노무현재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학계와 시민사회에 폭넓게 공유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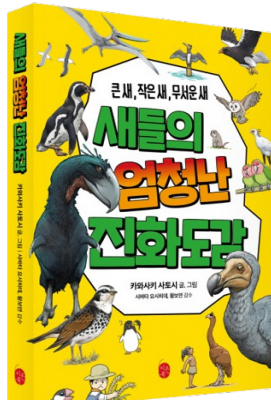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



▲김보 지음, 북라이프.



▲강재근 지음, 좋은땅출판사.



▲가와사키 사토시 지음, 이은북.

계, 자격증 취득 과정,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 창업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현실적인 과제를 경험담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이은북 ‘…새들의 엄청난 진화도감’

이은북이 새들의 진화 이야기를 담은 ‘큰 새, 작은 새, 무서운 새 - 새들의 엄청난 진화도감’을 출간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온 새들의 크고 작은 특징

을 살펴보고, 거기에 숨은 비밀에 관해 이야기한다. 다방면으로 진화를 거듭해 온 새들의 엄청난 이야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내 상상력을 키우는 데 좋다.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조류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용한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

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조류의 특징을 섬세하게 담은 일러스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교보문고>